

지역·시대 따라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 달라

슈마허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경제학 존재는 당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조금씩이나마 예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현실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단도, 그리고 처방도 시원스럽게 내리지 못했다. 회복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현대 경제학이 시원스러운 예측과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변화양상이 너무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정교한 이론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즘 같은 경제사회적 현상을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경제학을 가르쳐오고 있는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주류 경제학에 대한 불만이 많다. 주류경제학이 다루는 가격기구는 근본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그것만으로 현실경제의 움직임을 모두 설명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아카데미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분석 방법이 너무 기술적인 방법론에만 의지한 나머지 계량 모델(model)식 분석방법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 논문에는 그리스문자나 고도의 수학적 방정식을 전개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여기서 현대 경제학은 인문과학인가, 자연과학인가 하는 질문까지도 나온다.

‘과학(science)’ 혹은 ‘학(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본래 ‘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경제학은 어떤가?

흔히 얘기하듯이 ‘경제학’에는 사회과학이면서도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수요 공급 현상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기구의 법칙성이나, 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동태적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제학은 자연과학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경제사(Economic history)라는 면에서 경제학을 살펴보면, 각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실의 의미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근대경제학’ 이전에 고전과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 Smith)의 시대와 현대에는 본래 공통점은 있지만, 대상의 취급방법이나 이슈가 되는 사실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 경제론·자유무역론을 설파한 이후,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리스트(F. List)가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호무역론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차이, 시대의 차이에 따라 경제학에도 차이가 있듯이,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대 유럽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 신앙이 얼마나 자본축적의 의욕을 긍정적으로 촉진했는가를 해명한 막스 웨버(M. Weber) 자신도, 동서양의 세계종교와 그 사회발전과 관계를 밝히면서, 기독교 이외의 애니미즘적 문화와 불교신앙을 가진 한국, 일본 등 동양사회에 있어서 문화 및 경제의 상이한 움직임에 커다란 흥

미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 국가 사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경제도 다르다면 경제학이 국경을 넘어 한결 같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사회와 상이한 문화에 따른 경제 행태(behavior) 및 경제학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과 리스트가 주장한 ‘독일의 경제학’에 차이와 가치를 인정한다면, ‘서구의 경제학’ 외에 ‘동양의 경제학’이 존재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자연스런 발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세계에 널리 퍼져 근대문명을 창출했다.

근대문명을 설명하는 데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앞이는 불가능한 결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國富論: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이 출간된 이후 ‘국민의 부’의 실현을 통해 물질문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이론적 체계를 엮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미스가 구가한 자본주의사회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것처럼 보이는 마르크스(K. Marx)경제학도, 스미스 이론의 계승자인 리카도(D. Ricardo)의 경제학을 환골탈태(換骨脫胎)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교 문화권에는 불교사상의 경제학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슈마허의 주장은 조금도 엉뚱한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슈마허가 불교경제학을 주장한 것은 초빙 경제고문으로서 가난한 불교국가인 미얀마에 근무했을 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응용한 개발방식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의 분야에서는 서양문화권이 있는데 대하여 동양서예론도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의학에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이한 의학체계가 있다. 서양근대의학에 대하여, 동양에는 한방(韓方), 침술 등의 의학이 있는 것이다. ‘서구경제학’이 세계를 석권했다고 하는 사실과 같이 의학분야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동양의술이 동양의 오랜 문화적 바탕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불교경제학도 동양사회의 역사적 전통위에서 새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우리의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주류경제학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분석함으로써 그 골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불교경제학이 정말로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대문명(즉, 서구문명)에 의문을 품게 하는 어떠한 대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그룹이 영미의 시장원리주의 모델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가 그 하나일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격차사회와 지구환경의 위기적인 상황이 더욱 절박해질 때 일 것이다.

나는 지구환경의 위기가 이미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동양문화의 전통적 경제 원리로서의 불교경제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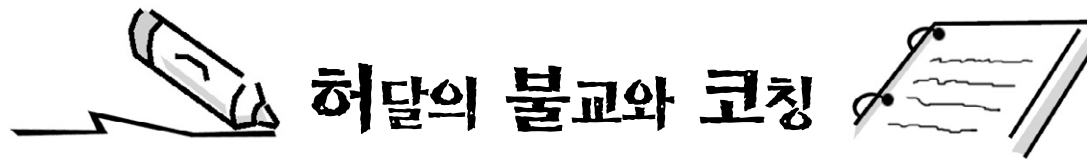
그림 · 김필원

④ 코치의 사명

‘승-승(Win-Win)’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승-승’을 ‘까짓 것 내가 쳐주면 그만이지’ 하는 ‘패-승’ 쪽으로 쉽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은 ‘패-승’으로는 시너지를 키워드로 하는 상호의존성의 세계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진행하는 리더십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과학적인 측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무 판자 한 장이 지탱하는 최대 하중이 275 kg일 때 동일한 판자 두 장을 포개어 사용하면 얼마까지의 무게를 지탱해 줄까? 이 경우 실험 결과는 최대 하중이 두 배인 550 kg이 아니라 물결 2,210 kg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철새인 야생 거위를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무리를 지어 쪼쇠 모양의 대형을 유지하며 날아간다.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거위가 이 편대비행을 통해 홀로 날 때보다 70% 더 빠르게 난다는 것이다. 쪼쇠 대형으로 나르면 유체역학적(流體力學的)으로 양력(揚力)이 생겨, 맨 선두의 리더(Leader)가 날고, 그 날 자리에는 뒤따르는 다른 대원들의 힘을 떨어주는 공기의 흐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힘든 리더 자리를 순번대로 차례로 맡아 무리의 이동 속도를 높인다



는 것이다. 철새가 얼마나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인데, 목적지에 다다른 시간은 빠른 이동 속도만큼 단축할 수 있다면 생존의 기회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귀중한 시너지의 지혜를 야생 거위가 찾아 활용하는 실례이다. 리더가 군림(君臨)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인 까닭에 그 시너지가 발휘되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더는 군림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

시너지는 자연법칙이나, 의당 인간계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 매진하면 초인간적인 폭발적 시너지가 발휘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또 다른 사례들에서는 역 시너지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어 있다. 타 부서의 직원을 사정사정 빌려

다가 사업추진팀을 만들고 목표를 공유하려고 공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차라리 내 부서의 맘 맞는 구성원 몇 명과 단호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백 번 나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팀장들을 자주 보았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구성원 각자의 이기심이다. 공명심, 시기심, 남의 발목을 잡는 행위, 무관심, 게으름, 편 가르기, 따지고 보면 이 부류의 모든 시너지 장애요소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둘째는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문제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 표정, 몸짓 등의 부호로 바꿔 의사소통을 한다. 이 부호 체계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호를 사용하

는 주제를 떠나 독립적으로 개념을 형성해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왜곡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 쌍방이 다 좋은 의도로 합의된 목표를 갖고 시작했으나, 결국 문화충격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간 합작사업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셋째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시각의 문제이다. 차이점을 인식하는 태도에는 ‘잡는다’, ‘인정한다’, ‘존중한다’, ‘환영하며 축하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종합하면, 시너지는 단계적 성과를 독점하고 싶은 이기심을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승-승’ 마인드로 분석하고,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어 등 의사소통 도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자연의 선물이므로, 차이점을 축하(celebrate)하는 태도를 갖춰 이를 받아 지니라는 것이다.

코치는 모든 인간관계를 ‘승-승’으로 만들고자 하는 높은 목표를 지향한다.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발자 코치의 사명서를 잠시 들여다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구절이 눈에 뜨인다.

“끝 없는 자기 완성의 과정이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한다.”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코치에게는 코칭이 그 답이 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지구촌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우리 국운이 海道金卵 영도자가 전세계를 지배 새로운 도법인 미륵진태양도법 해안을 여는 소울을 경신 대법회

원종대사 海道金卵의 비밀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사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그 누구도 상에 빠져 음과 양 유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층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 경신도법으로 탐진치 곁집을 벗는 수행법

- 우매한 중생은 보고듣고 먹고 만져봐도 모르는 상에 매여 스승 못 만난 자상에 빠져 제것도 아닌 글자 몇 자 도판에서 얻어 들고 큰 도통이나 한 것처럼 날뛰는 지금 천사가 海道金卵 즉, 말의 소울 타는 기축년 윤오월 21일, 22일부터 계룡천년이 시작되어 음과 양이 바뀌고 신과 바다와 물결과 물결이 바뀌는 지구촌 천지공사로 천마리 닭과 마을이 울어 봉황의 소리가 울려야 지구촌 닭이 울어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단군 이래 9000여차례 천력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운이 최종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윤오월 경신일 초보 무공성군이 양력 7월 13일 14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경신일 소울을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게 뜻을 전하노라

이제는 말이 소울 타니 소가 울어대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영원한 세상으로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행복한 삶과 경신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최상승수행법이며 우리나라 국운이 세상을 지배해 해와 달과 별을 구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운이 막혀지고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운집하여 세계인류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법에 도전하시어 도통군자되고 천지공사 주인되소서.

본 말마중단에서는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 마도법으로 뜻이 있신 분과 본중단은 생활불교, 거사불교, 보살불교, 대중불교 머리끄덕이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증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윤달드래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결혼,생남,사업,진급자,고시자,취직,도통군자들에게는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상생의 죄업을 벗고 약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시고 부귀장수 하소서.

신 종종 수행은 수행하는 자들의 능력과 말문을 열어 삼도의 뿌리를 끊고 마음자리에 부처를 모시는 것이고, 엄불도통, 참선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는 인류도통군자 사명자 지도 주문으로 득도하는 기도인 것이다.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도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천년이 시작되는 천지공사 海道金卵 도통군자 되는 법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달마중조계종 부산법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휴대폰 010-8533-1601,010-3239-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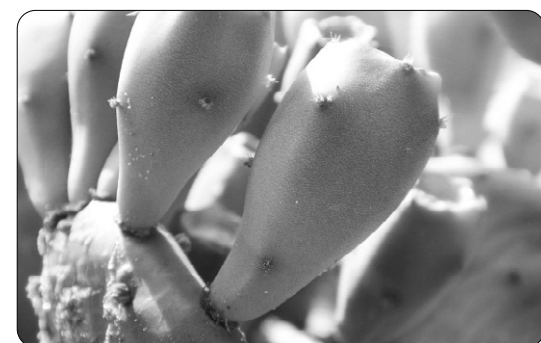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해안을 열어 거부장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아명당 진인출현 경신수행 지도수행처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중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의집 수행처 법당연불자, 맞아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등함

●입제: 양력 2009년 7월 13일(월, 5월 21일 월요일)(해시)
●해제: 양력 2009년 7월 14일(월, 5월 22일 화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팩대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쪽구 약사차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천지공사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신통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